

# 장마철 벼 병해 제때 방제가 중요

농진청, 이른 장마 등으로 병해 증가 전망 따라 벼흰잎마름병, 침수 잘되는 곳에서 상습 발병 방제시기 놓칠 수 있어 발생 초기 정확한 진단 필요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올해 이른 장마와 고온다습한 날씨로 벼 병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조기진단과 적극적인 방제를 2일 당부했다.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벼흰잎마름병은 특히 침수가 잘되는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발병한다. 이외에 벼도열병, 벼잎집무늬마름병, 세균벼알마름병 등 벼 병해 발생도 우려된다. 벼흰잎마름병에 걸리면 벼 잎이 하얗게 마르고 광합성이 원활하지 못해 쌀 품질과 수량이 떨어진다. 매년 부안과 전남 장흥, 순천 등 상습 발생지를 중심으로 최초 발생이 확인된다. 벼흰잎마름병은 발생 초기에 정확하게 진단해 제때 방제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벼흰잎마름병 증상이 비파이나 가뭄에 의한 피해 또는 카다리병과 비슷해 방제시기를 놓치거나 약제를 잘못 사용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방병이 의심되면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기초기반과(063-238-5342)로 문의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벼흰잎마름병 상습 발생지에서는 태풍이 오기 전이나 직후 아족시스트로빈, 페리존 계통 약제를 살포해 예방한다. 방병이 확인된 경우에도 동일한 약제를 살포한다. 벼도열병은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병이 심해지면 포기 전체가 붉은 빛을 띠고 생장이 멈추며 후기 이삭도열병 발병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카프로파미드, 트리사이클라졸 계통 약제를 사용해 예방 위주 방제를 실시한다. 벼잎집무늬마름병은 어린 이삭 시기나 이삭이 드는 시기에 예방적 방제를 해야 한다. 병 증상이 보이면 즉시 발라미디아신에이, 헥사코나졸 계통 작용 약제로 방제한다. 세균벼알마름병은 이삭이 패거나(출수기) 꽃이 필 때(개화기) 고온다습하면 발생한다. 이삭이 패기 전후 옥솔린산이나 가스가미아신 계통의 등록된 작용 약제로 제때 방제한다. 한편,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작물에는 등록된 약제만 사용할 수 있다. 병해충 발생과 약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사로 누리집(www.nongsa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박기도 과장은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 현장 상황을 수시로 관찰하고 정확한 예방과 방제 정보를 제공해 벼 병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포도에 봉지 씌우면 병 예방 효과 2일 원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험 재배지에서 연구원들이 포도에 봉지 씌우기 작업을 하고 있다. 포도에 봉지를 씌우면 병을 예방하고 포도알이 먼저 등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 가업 승계형 세대융합 프로그램 지원

경진원 운영 순창장류소공인특화지원센터, 참여 업체 수시모집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이 운영하는 순창장류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가업 승계형 세대융합 프로그램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수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순창장류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순창군, 경진원이 함께 운영하는 기관으로 순창지역 전통장류제조 소공인의 성장 발전을 위한 밀착형 현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업 승계형 세대융합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순창장류 산업의 전통성 유지를 위한 가업 승계형 장수 기업화를 유도하고, 신규 창업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여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시설구축 등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순창군 관내에서 최근 3년 이내(2018. 1. 1. 이후) 장류제조업 기업승계자, 귀농·귀촌자로 신규 장류제조업 창업자, 일반 장류제조업 신

규 창업자 및 청년 창업자가 대상이며, 3개 업체에 연 500만원씩 총 3년간 지원한다. 평가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창업 및 사업확장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입비, 기술개발, 품질관리 검사비 등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순창장류소공인특화지원센터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업승계 장류제조 소공인의 성장과 더불어 한국 전통 장류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청기간은 11월까지이며 수시모집을 통해 지원한다. 지원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bta.kr) 또는 순창장류소공인특화지원센터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sogongsunchang)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관련문의는 순창장류소공인특화지원센터(063-652-1030)으로 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북지방환경청은 ㈜전주페이퍼를 녹색기업으로 재지정하고 2일 녹색기업 지정서 수여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 도내 '최초' 제지업계 '최초'

전주페이퍼, 녹색기업 재지정 현판식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정복철)은 ㈜전주페이퍼를 녹색기업으로 재지정하고 2일 녹색기업 지정서 수여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녹색기업'은 환경오염물질 저감 및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등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 친환경경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거쳐 환경청장이 지정하는 제도다. 전주제1산업단지에 위치한 ㈜전주페이퍼(공장장 김경식)는 1995년 전북지역 최초, 제지업계 최초로 녹색기업에 지정된 이후, 전 부문에서

환경투자와 더불어 공정개선을 성실히 실행했으며,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전 사원의 환경의식을 향상시켜 각 분야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1998년(지정기간 3년), 2001년(지정기간 5년), 2007년(지정기간 5년), 2012년(지정기간 5년), 2017년(지정기간 3년) 재지정에 이어 또다시 녹색기업에 재지정(지정기간 3년) 되었다. ㈜전주페이퍼는 폐지를 재활용해 신문용지 및 산업용지를 주로 생

산하는 기업으로서 연간 약 백만톤의 폐지를 재활용하는 폐지 재활용 공장이다. 폐지 재활용으로 연간 약 1,600만 그루의 소나무를 보전하며,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0배에 달하는 숲을 보호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특히, ㈜전주페이퍼는 바이오가스 발전설비 설치, LED 조명 교체 등 에너지 부문에도 많은 투자를 시행했으며,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대기오염물질 저감,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에너지 부문 투자와 더불어 오염물질을 저감시킬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 대한민국 동행세일 in 전북, 오늘 한옥마을서

브랜드K 상품권 · 중기 우수상품권 등 최대 50% 할인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진작 차원으로 마련된 대규모 할인행사 '대한민국 동행세일' 현장행사가 전북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in 전북이라는 이름으로 3일부터 5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부근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중심의 한국형 세일행사로 대형마트, 가전, 자동차, 온라인쇼핑몰, 전통시장, 동네슈퍼 등 전국의 유통채널들이 대거 참여, 최대 50%까지 세일하는 행사이다. 지난주 부산과 대구를 시작으로 이번 주 전북과 충북에서 열리며 12일까지 경남과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전북행사에는 코로나19 생활방역 상황을 반영해 모바일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등 비대면 중심 새로운 형태의 소비촉진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

다. 식품, 리빙, 뷰티 등 브랜드K 상품권과 중소기업 우수상품권이 꾸려지며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판매 방송과 현장에서 홍보할 수 있는 라이브커머스로 운영된다. 현장의 모든 상품은 최소 30% 이상 할인 판매하며 라이브커머스 생방송 중 구매시에는 최대 50% 할인을 받고 추첨을 통해 경품까지 지급되는 등 풍성한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더불어 전북도는 동행세일과 맞물려 다채로운 행사를 연계, 소비촉진 분위기를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주지역 800여개 업체를 통해 제품 할인행사와 소비인증이벤트를 진행하고 457개의 동네슈퍼마켓과 나날가게에서는 착한슈퍼 착한가격 동행세일이 펼쳐진다. 또한 전주남부시장 등 도내 14개 전통시장에서도 당일 구매금액의 20%를 은누리상품권으로 최대 4만원까지 돌려주는 페이백행사와 경품추첨, 다양한 문화행사도 진행한다. 아울러 전주 남부시장과 모래내시장에서는 각각 4일과 5일 오후 2시 30분부터 현장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해 실시간 시장홍보와 제품판매 시간도 갖는다. 이외에도 지난 1일부터는 전북투어패스 1+1 특별판매행사와 전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특별이벤트, 한옥마을 문화센터 등이 행사기간동안 열려 소비진작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북도는 안전한 행사를 위해 주기적 소독과 행사장 곳곳에 손 소독제 기기를 비치하고 방역 인력들을 배치하여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에 사용을 당부하는 등 촘촘하게 방역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 사태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행사이다"며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모처럼의 활기를 찾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 농산물브랜드 '예담채', 영남 간다

부산 벡스코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 참가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과 전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전북 농산물의 영남권 시장개척을 위해 부산 벡스코에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제6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에 참가한다. 양 기관의 이번 박람회 참여는 전북 지역 우수농산물 소개와 전라북도 광역브랜드 예담채를 식품 관련 바이어 및 소비자들에게 식식 및 증정 행사를 통하여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다. 전북도에서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수박, 토마토, 감자 등 20여 품목의 원예농산물과 전북도에서 10년에 걸쳐 개발한 구수한 향이 나는 '예담채' 심리향 쌀이 출품됐다. 전북농협 박성일 본부장은 "전북 농·특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영·호남 중소형 마트까지 지속적인 틈새시장을 공략해 올해 시·군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4천억원 이상의 농산물 연합판매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한창술 신임 서부산림청장 취임

서부지방산림청 제20대 청장으로 한창술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이 지난 1일 취임했다. 한창술 청장은 남원 출신으로 전북대학교 임학과를 졸업했으며 산림자원과 및 해외조립 등을 맡아 산림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았다. 산림청에서 한 청장은 정읍국유림관리소장, 영주국유림관리소장, 북부청 산림재해안전과장, 산림자원과장을 역임하는 등 산림정책 및 현장 업무까지 두루 정통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병원·약국 등 대상

신상품 'NH메디칼론' 출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약을 맺고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신상품 'NH메디칼론'을 출시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금융대출지원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NH농협은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용 데이터 송·수신시스템을 구축하고 2022년 6월까지 요양기관 금융대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NH메디칼론은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간 매출액의 1/2 또는 공단으로부터 받는 연간 요양급여수령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자유롭게 입·출금을 이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신용대출로, 협약 우대금리 1.0%를 포함해 최대 1.7%까지 금리 우대가 가능하다. (2020.6.29. 기준 대출 최저금리 연 1.95%) 장기요 본부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약을 맺음으로써, 도내 요양기관이 더욱 편리하게 요양기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경영과 도민 대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지역 소상공 대출 지원

농협 남원시지부

코로나19 대응 '특특'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박노현)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협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사례로, 올 상반기 농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원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지난 6월말 기준 125억원 지원한 바 있으며, 이는 전북관내 시군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또한 3월에는 남원 관내 7개 농축협과 코로나19구복을 위한 성금 3,000만원을 남원시에 기탁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남원의료원 의료진을 격려하기도 했으며, 4월에는 혈액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보도에 남원관내 농협직원 200여명이 헌혈에 동참해유급환자들에게 도움을 준 바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은행, 고창남중 대상 '찾아가는 진로경제교육'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1일 고창남중학교를 찾아 전교생 2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진로교육'을 실시했다. 전북은행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진로경제교육'은 1사1교 금융교육의 일환으로 금융전문가의 맞춤형 방문교육을 통해 현재 경제 이슈 및 금융권 진로를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금융권 채용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고창남중학교를 찾은 전북은행 사회공헌부 김세진 대리는 자칫 어렵고 딱딱할 수 있는 금융 상식에 대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으며, 진로 고민이 많은 시기에 금융권 취업에 필요한 역량과

성공사례를 설명해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전북은행 김경진 사회공헌부장은 "전문적인 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은 도서 및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해 경제와 금융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금융권 진로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며 "진로경제교육에 관심있는 학생과 학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와 JB전북은행 사회공헌부(☎063-250-7495)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많은 신청 바랍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1사1교 금융교육, JB Dream up 금융투어, 진로코칭캠프, JB 인문학강좌, 3D 프린터 지원사업 등 도내 미래 인재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 /김윤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